https://doi.org/10.21186/IPR.2023.8.3.095

경력단절 중년여성의 명리변수와 자기효능감 및 우울감 관계 분석

신순옥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동양학과

An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among Mingli-variable, Self-efficacy and Depression in Middle-aged Women with Discontinued Career

Sun-Ok Shin

Dept. of Oriental Study,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요 약 본 논문의 목적은 심리·사회적으로 취약한 40~50대 고학력 경력단절 중년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성격유형에 따라 자기효능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 및 변인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심리적 문제를 개인적 관점에서 탐색하며, 나아가 사회적으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 및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명리변수와 자기효능감, 그리고 우울감의 변수로 구조화된 측정 도구를 바탕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성격유형의 하위차원 특성이 자기효능감에 가지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그리고 그에 따른 우울 수준을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비겁, 재성, 관성은 자기효능감에 대해 긍정적인 직접영향을 주며, 우울에는 부정적인 직접영향을 주어, 결국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우울은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식상은 우울에는 정(+)적 관계를, 자기효능감에는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인성은 자기효능감과 우울에 직접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 변인 간의 간접영향,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우울 간의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주제어 명리변수, 십성, 자기효능감, 우울감, 구조방정식 모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grasp the influence on self-efficacy and depress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focusing on middle-aged women in their 40s and 50s who are psychologically and socially vulnerable. Through this, it was intended to explore the psychological problems of highly educated career-interrupted women from a personal perspective and further deriv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olicies and services for socially highly educated career-interrupted women.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was analyzed through a survey based on measurement tools structured by variables of Saju factors, self-efficacy, and depression, and the effect of the sub-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Saju structure on self-efficacy, and the resulting level of depression were verifi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Bigeop, Jaeseong, and Kwanseong have been found to have a positive and direct effect on self-efficacy and negative direct effect on depression, eventually increasing self-efficacy and lowering depression. It was found that Siksang had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depression and a negative (-) relationship with self-efficacy, but Inseong did not directly affect self-efficacy and depression. In addition, the indirect effects between variables and the effects between self-efficacy and depression were identified.

Key Words Mingli-variable, Sipseong, Self-efficacy, Depression, Structural equation model

Received 30 Apr 2023, Revised 05 Jul 2023
Accepted 11 Jul 2023
Corresponding Author: Sun-Ok Shin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Email: leif3713@hanmail.net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여성 고용률이 높아졌다곤 하지만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30~50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은 고용시장 재진입을 시도할 때, 현실의 장벽이 높아 좌절을 맛보게 된다. 한국의 여성 고용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양적으로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듯 보이며, 특히 여성 교육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러나 여성 인력 활용 면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저수준에 있는 게 한국 여성 인력의 현실이다.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현황에 따르면 15세에서 54세 기혼여성 905만 3,000명 중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이 181만 2,000명으로 분류되었다. 이중 경력단절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30대였으며 전체 30대 기혼여성 274만여 명 중 92만여 명으로 33.8%가 경력단절 여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형적인 M 커브모형을 이루고 있다.

오늘날 여성 인력의 양성 및 활용방안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 노동인구 감소라는 문제 해결 방안이자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그 당위성과 중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 욕구는 고학력 전문 인력으로 꾸준히 증대하였으며 경제활동 참가수준이 지난 40년간 계속 증가했으며, 고학력 여성의 비율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서 우수한 여성 인적자원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경력단절 상태에 있는 여성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동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 여겨져 왔고 비취업자의 고용정책에서도 배제되어 왔다. 현실적으로 취업 의사가 있는 여성의 경우라도 육아의 이유로 당장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노동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중년여성들의 취업 문제와 어려움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결혼과 함께 자의든 타의든 가사노동을 선택하게 되며 자녀 양육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 위한 시도를 할 시점에는 사회가 그들에게 경력을 요구하며 취업 장벽을 높임으로서 상대적 고용 취약계층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을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에게 있어 사회적인 '일'은 자기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형성하며 사회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데, 특히 능력 위주의 현대사회에 장기적 경력단절을 가진 여성이 사회적인 '일'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걸림돌을 뛰어넘어야 하고, 이로 인해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왜소화와 단절은 더 강화된다(김현미, 1999)[3].

경력단절에 따른 부정적 심리환경으로서 우울감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에 관한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며, 경력단절 여성의 정책 마련 시 이들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와 갈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심리적 문제를 면밀하게 탐색하고, 그 원인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경력단절 중년여성이 고용시장의 재진입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불안이나 낮아진 자기효능감 등을 상쇄시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성격과 심리, 특히 직업 유형을 파악하고 가장 합리적인 취업전략을 구상하여 실패를 줄여가는 방법이다. 이미 경력단절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이른 시일 내에 극복하기는 어렵겠지만 자신의 타고난 적성과 직업 유형을 알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취업하는데, 구직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필요에 부응해 줄 수 있는 것이 명리학의 직업적성 이론이다.

이 연구는 심리·사회적으로 취약한 40~50대 고학력 경력단절 중년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성격유형에 따라 자기효능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 및 변인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심리적 문제를 개인적 관점에서 탐색하며, 나아가 사회적으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 및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직업학적 측면에서 명리적 천성을 통해 얻은 고학력 경력단절 중년여성의 명리변수가 제공하는 개인의 타고난 성격이나 적성 등 선천적 자질을 확인함으로써 개인의 고유성을 인식하고, 각자가 명확한 자기 이해를 하도록 함이다. 이들이 지닌 우울감과 자기효능감 등 부정적 심리의 원인과 극복방안 및 본인에게 적합한 직업진로를 선택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실증연구로서 혼합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선행적으로 대상자 면담과 관찰을 통한 심층적인 사례로 연구를 하였으며, 양적 연구로 설문지 조사를 활용한 통계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이 논문에는 양적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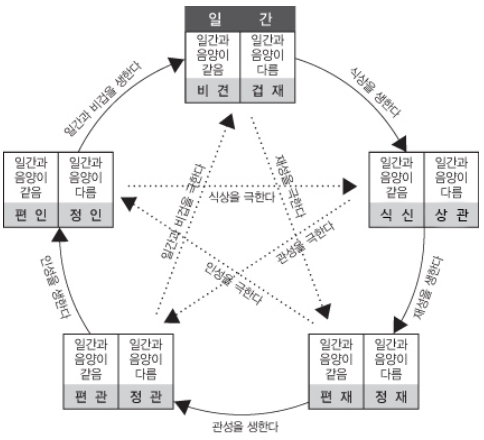
선행적 면담에서는 경력단절 중년여성들을 면담하여

그들의 경력단절 상황과 성격유형 및 자기효능감, 우울 등의 개연성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고, 이를 기초로 한 구조화된 측정 도구를 바탕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명리변수와 자기효능감 및 우울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성격유형의 하위차원 특성이 자기효능감에 가지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그리고 그에 따른 우울 수준을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명리변수 – 십성

명리 성격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자 요인은 열 개의 십성으로 일간과 음양오행이 같은 비견(比肩), 일간과 오행이 같고 음양이 다른 겁재(劫財), 일간이 생하며 음양이 같은 식신(食神), 일간이 생하며 음양이 다른 상관(傷官), 일간이 극하며 음양이 같은 편재(偏財), 일간이 극하며 음양이 다른 정재(正財), 일간을 극하며 음양이 같은 편관(偏官), 일간을 극하며 음양이 다른 정관(正官), 일간을 생하며 음양이 같은 편인(偏印), 일간을 생하며 음양이 다른 정인(正印)이다(김배성, 2006)[2].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일간 기준 십성 형성과정

이처럼 십성은 오행의 상생상극에서부터 음양에 따라 표출되며 각자 고유한 명칭에 의해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사주팔자 내에서 네 개의 천간 중 일간을 주(主)로 삼으며 자신이 타고난 일간을 중심으로 다른 천간과 지지에 상응 대입하여, 십성을 형성시키게 된다.

십성은 인간의 정신생태계의 근원적 성정을 이루는 본능 군의 회로시스템을 상징화한 정신구조의 질서 체계이다. 이것은 타 오행과의 코드를 찾아 연계 발전하거나 진보와 도태의 현상으로 역순환과 상호작용 기능을 갖게 된다. 김기승(2008)은 십성의 발현을 3단계 프로세서로 나누었다. 1단계는 무의식적 욕구인 생리적 성향의 지향을 하는 것으로 십성의 설기 오행이 욕구의 변화를 모색하고, 2단계에서는 십성의 생조 오행으로 욕구를 편성함으로 잠재의식적 요구인 정신적 성향의 지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 3단계는 의식화된 욕구인 사회적 성향의 지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십성의 종류별 작동 영역 및 3단계 발현 성향에서의 심리상태와 행동패턴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십성의 정신분석

구분	작동 영역	무의식적 생리적 성향	잠재의식 정신적 성향	의식화된 사회적 성향
비견	본능	하고자 하는 욕구 이루어 내야 만 하는 강요된 욕구의 성질	에너지의 정체성과 실현 의지의 탐색	외부요인과의 유연한 기여와 수용 관계
식상	감성	재능의 다양성과 현실투사에의 욕구 증대	재능의 발현과 에너지와의 충돌	재능의 현실화와 기회 착안
재성	욕망	의지 투입과 의지 현실화	의지의 현장화를 위한 목적의 체계화	의지의 가시화를 위한 프로젝트
관성	중추	성취 욕구의 팽창과 지적 자산의 과잉상태	성취를 위한 다변적 구상과 모색	성취를 유도하는 다각적 실험정신
인성	사고	삶의 과잉목표에 대한 불안과 긴장	목표의 설정과 현실적 괴리의 최소화 유도	목표의 현실투사를 위한 지적 자원의 활성화

이처럼 사주 십성은 일간을 중심으로 개인의 정신적, 사회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의 영역이 부여하는 동시에 인간관계에서 작동하는 도구임을 알 수 있다. 십성은 각각은 고유한 성정과 심리구조를 지닌 구별점으로서, 십성의 상대적 작용력과 특정적 욕구를 잘 이해한다면 긍정, 부정의 측면에서 한 사람의 성격이나 적성, 인간관계, 경쟁력 등에 대한 면밀한 특성을 알게 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김기승, 2011)[1]. 십성은 일간을 중심으로 오행의 생극제화에 따른 십성에 따른 영향이지만 타 간지에 분포된 십성에서 원하는 욕구가 있다.

이 욕구가 충족여부에 따라 행복과 불행 성공과 좌절을 가져온다. 이는 개인의 심리적 욕구에 영향을 끼치며, 욕구실현의 충족에 따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2.2 경력단절 여성의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라는 것은 각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신의 동기를 행동으로 발현하는 데 필요한 자신감과 인지 자원의 행동절차를 스스로가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노력과 판단 혹은 신념을 말한다(Bandura, 1986; 곽재덕, 김진모, 2010). 이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경력단절 중년여성이 어떠한 성취목표 달성을 위하여 요구하는 활동을 스스로 조직하여 실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인지적 판단 및 신념으로 정의한다.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심리·사회적인 통제를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경력단절 여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Betz & Hackett, 1983; 권희경, 2010; 김인선, 2005). 일반적으로 경력단절 여성은 타 집단에 비하여 자기효능감이 낮았으며, 낮아진 자기효능감은 결국은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개발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Betz & Hackett(1983)[17]는 전통적인 성역할 사회화의 과정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경력 관련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유는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소로는 성과달성, 대리학습, 정서적 각성, 언어적 설득 등의 네 가지 정보 원천에서 비롯된 자신감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또한 여성의 진로발달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은 중요한 변인요소이며 진로선택, 진로행동 그리고 불확실한 경험이나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어려움을 견뎌내는 인내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Matsui et al.(1990)[19]는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 자기효능감 검사를 연구한 결과에서 남성 지배적인 직업에 비해 여성들은 낮은 진로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결과를 밝혀냈다. 이와 마찬가지로 Dix & Savickas(1995)도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에 대한 태도와 진로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남성 중심 직업에 대하여서는 낮은 진로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Richie et al.(1997)은 18명의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을 대상으로 진로발달 단계를 파악하기 위한 질적 연구방법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여성들의 진로발달은 남성들에 비해서 사회화의 과정이나 현재 처해져있는 상황적인 조건들이 영향이 비교적 쉽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 상황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작용하는 자기효능감은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하였다.

Nauta et al.(1998)[18]은 이공학 계열 전공과 생물전공을 선택한 여성들을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이들의 진로기대를 가장 잘 예측하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기초로 이들은 개인의 능력, 자기효능감, 역할모델, 역할갈등이 여성의 높은 진로기대에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고 총 546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설정한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구를 통해 비전통적 여성 진로를 선택하였으며, 그중에서 성공하기를 기대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이들을 위한 별도의 처치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김인선(2005)[7]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고정관념이 각 세대를 거쳐 사회화되며 이것이 여성 자신의 행동규범으로 내면화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여성적 특성은 취업활동 시 요구되는 독립성, 진취성, 창의성, 경쟁성, 합리성 등을 결여하게 하여 여성의 취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요컨대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자기효능감이 낮아지게 되며 이는 결국 여성의 경력활동에 있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반대로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은 여성이 자신의 경력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있어 자기조절과 통제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환경에 대한 통제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97).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에 비해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경험이 적었다. 때문에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며, 결국 그것에 대한 통제력이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감이 부족하고 자신의 자신감 결여와 잠재적 단점에만 빠져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높으며, 환경에 대한 통제 능력도 떨어진다(박은영, 2004)[9].

이와 관련하여 이희정, 김금미(2010)[14]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경력단절 여성 14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력단절 여성

이 자신의 진로장벽을 인식하고 진로준비행동을 하는데 있어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비록 경력단절 여성의 진로장벽이 높더라도 개인 수준의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진로준비행동이 촉진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3 중년여성의 우울감

우울은 심리적으로 우울한 기분, 무가치한 느낌, 죄책감, 흥미의 상실, 집중 · 기억력의 감소, 자살에 대한 생각 등의 증상과 신체적으로 식욕이나 몸무게의 변화, 수면의 변화, 피로 등의 증상들을 수반하는 정신병리이다(Leahy & Holland, 2008). 이 연구에서 우울은 지속적으로 기분이 슬프고 불행하며, 침울한 기분의 지속성, 에너지의 저하로 인한 결핍, 집중력과 기억의 어려움, 또한 즐거움과 자극의 원천이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고, 사고는 부정적이며,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갖는 등의 상태로 정의한다.

중년여성의 심리적 변화는 폐경에 따른 우울과 슬픔의 과정으로 죄책감, 절망감, 안절부절, 죽음에 대한 양가감정, 불면증을 보이는데, 이는 중년여성의 폐경은 질병이 아니라 상실이나 손상으로 볼 수 있고, 여성다움, 생식력, 젊음, 힘, 기능과 역할의 상실을 의미한다(김순안, 2012)[5]. 중년여성의 사회적 변화는 자녀들의 성장으로 자유시간이 많아지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 결혼 생활로 인해 하지 못했던 관심사와 활동을 추구하고(이미자, 양진향, 2012), '아줌마'라고 불리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 스스로 퇴화하기도 하지만,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약화된 역할을 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사회, 문화 및 제도의 변화 속에서 새롭고 다양한 대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도 한다(차영란, 김기범, 전경숙, 2007)[15]. 그러나 자녀들이 성장, 결혼, 취업 등으로 독립해 나감에 따라 가족체계와 역할의 변화가 초래되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중년여성들에게 또 하나의 위기가 될 수 있고 우울감에 영향을 미친다(박금자, 이경혜, 2002)[8].

중년기 여성의 우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의 발병 평균연령으로는 약 40세이다. 40~50대 중년으로 접어든 여성의 우울증 발생 빈도는 다른 연령대 보다는 높게 나타나서 50대 기혼여성의 우울 발생 비율은 39%로 30대 이상의 중년여성들이 가장 높게 나타나 중년여성의 우울 발병 문제에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변외진, 김춘경, 2006; 김희경, 2004; 최미영, 2011). 중년기는 인생 주기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단계이고 비교적 예측 가능한 시기이며(박선아, 2012), 중년기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중년기 이후의 삶의 질이 결정되므로 중년여성의 우울은 반드시 중재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겠다.

기존의 중년여성의 우울과 관련된 심리 사회적 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여성들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한미정, 이지현, 2013). 최광심, 오현이, 심정신(2008)은 특히, 갱년기 증상이 많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폐경 증상이 심각할수록 우울 수준도 따라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이홍자, 김춘미, 2010).

또한, 최성희(2001)[16]의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 중 특히 일과 가정양립, 다중적성 역할, 독박 육아 스트레스 등이 많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많은 여성들이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여성들이 받고 있다 하더라도 가족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게 나타나 가족원들과 사회적 관심과 지지, 사회적 지원체계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박수민, 2009). 또한, 심리적 영적 안녕감에 따라서도 중년여성의 우울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심리적 영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우울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혜숙, 2006). 특히, 개인 내적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우울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미례, 2006).

한편, 김연희(2011)[6]는 갈등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방식 사용여부에 따라서 우울감 정도의 수준에는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적극적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비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보다는 우울 경험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년여성의 사회봉사 및 취미활동관련 사회활동에 참여할수록 우울에 대해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년여성의 다채로운 사회 활동들이 우울감 감소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중년여성의 우울과 심리·사회적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양육 스트레스, 가사, 일과 가정양립 스트레스, 다중적성 역할, 생리, 갱년기에 따른 신체적 변화,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 가족관계 및 지지, 대

처방식 등 다른 계층에 비해서 중년여성의 우울은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현주, 2001). 그리고 이는 중년여성의 개인 내적 특성과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명리변수와 자기효능감 및 우울감 관계 분석

3.1 관계분석 연구모형

이 연구는 양적연구(quantitative methods)로서 설문지 조사를 활용한 통계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선행적으로 수행한 문헌 연구와 질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40~50대 경력단절 중년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구성된 설문지 형태의 측정도구를 이용한 자료수집과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심리사회적으로 취약한 40~50대 경력단절 중년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성격유형에 따라 자기효능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 및 변인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명리변수는 명리학 이론의 근간이 되는 십성(十星) 개념을 이용하여 명리변수를 나누었다. 즉, 이 연구에서 십성을 정(正)·편(偏)으로 구분하여 나누지 않았고 비겁(比劫), 식상(食傷), 재성(財星), 관성(官星), 인성(印星)으로 구분하여, 5가지 십성의 경향성에 따라 크기를 점수화하여 변수를 측정하였다.

3.1.1 명리변수 및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 고학력 경력단절 중년여성 개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응답자의 생년월일시(연령/성격유형), 학력, 결혼기간, 자녀수, 경력단절 전 직업, 직장생활 기간을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를 단답형으로 조사하였다. 이 중에서 생년월일시를 이용하여 비겁(比劫), 식상(食傷), 재성(財星), 관성(官星), 인성(印星)의 십성에 의한 가장 높은 점수비율을 근거로 성격유형을 나누었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이용한 가설 검증 시에는 성격유형에 따라 연구대상을 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들 5가지 십성의 경향성에 따라 크기를 점수화하여 변수를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성격유형분석을 위하여 검사도구로 AAT선천적성검사 프로그램[1]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설문으로 수집된 연구 대상자 335명의 생년월일시를 각각 AAT선천적성검사 프로그램에 입력한 다음, 명리직업선천성의 하위변인 목표지향, 활용가치, 흥미열정에 해당하는 각 열 가지 십성(선천지능)의 점수를 산출한다. 여기서 AAT선천적성검사 프로그램은 입력된 개인의 출생연월일시를 인식, 자동으로 사주를 구성한 다음 5점 척도의 계산방식으로 목표지향, 활용가치, 흥미열정의 점수를 산출하여 점수와 그래프로 결과를 제공한다. 즉 하나의 사주에서 목표지향, 활용가치, 흥미열정을 구성하여 제공하는 열 가지 십성에게 배점되는 1차적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사주에서 지지의 기본 배점은 연지 0.5, 월지 1.5, 일지 1, 시지 0.5로 하였으며 사주의 천간은 자신을 나타내는 일간을 제외하고 연간과 월간, 시간을 모두 0.5로 배점된다. 이때 목표지향, 활용가치, 흥미열정을 이루는 천간의 각 십성은 자신의 위치에 있는 0.5의 수가 배당되지 않으므로 총점은 4.5이다. 5점 기준에서 -0.5는 사주 지장간에서 부여되는 가치이다. 이에 따라 천간의 목표지향, 활용가치, 흥미열정에 해당하는 십성이 지지 속에 있는 지장간에 통근을 하거나 인성의 생을 1곳에서라도 얻으면 0.25, 2곳 이상에서 얻으면 다시 0.25가 추가되며 최종적으로 0.5가 가중치로 계산되어 1차에서 최종 5가 배점된다. 이때 열 개의 십성은 모두 0.5의 가치를 부여받는다. 그다음 2차 계산방식인 상생상극의 원리와 합·충의 작용에 따라 0.5범위 내에서 (-)가 되거나 (+)가 되며 최종 값를 산출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산출되는 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격국(목표지향)의 점수가 (+)가 될수록 격국(목표지향) 역시 강해지고, 점수가 (-)가 되면 격국(목표지향)도 낮아진다. 용신(활용가치) 점수는 (+)가 될수록 용신(활용가치)가 강해지며, 점수가 (-)가 되면 이에 따라 용신(활용가치)의 점수도 하향한다. 이 같은 원리는 천성(흥미열정)에도 적용되므로 결국 직업 천성(흥미열정)의 점수여하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김기승, 2014)[4].

일반적인 명리상담에서는 가장 크기가 큰 십성을 내담

1) 김기승(2008)이 개발한 특허 제10-0834389호 '사주를 이용한 성격 직업성검사방법'으로 검사 명칭은 선천적성검사(Apriority Aptitude Test).

자의 성격유형으로 구분 짓지만, 이는 상대적인 정도의 차이일 뿐 다른 십성에서도 일정한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통계방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십성 총점을 10.0점으로 각 연구대상은 5가지 십성의 비율을 점수화함으로써 이러한 성격유형의 경향성이 자기효능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3.1.2 자기효능감

이 연구의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은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개인이 특정한 목표나 성취 상황에 이르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감'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Sherer et al.(1982)이 개발한 척도를 오복자(1994)[11]가 번안하고, 이안나(2014)[13]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단일차원 5문항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 문항의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나는 어려움이 닥치면 피하지 않고 도전한다.", "나는 새로운 일이 어려워 보이더라도 일단 배우려고 하는 편이다.", "나는 복잡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편이다.", "나는 어떤 일일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를 처리할 능력이 뛰어난 편이다." 등의 일상에서 전반적인 자신감을 다루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들의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은 것이 연구대상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이안나(20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45로 나타났다.

3.1.3 우울감

우울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기분의 변화로부터 병적인 상태까지 연속 상에 있는 우울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Zung(1965)의 자가평가 우울 도구를 송옥현(1977)[1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우울 검사도구는 단일차원 총 20문항으로 부정적인 문항 10문항, 긍정적인 문항 1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부정문항은 "나는 매사에 의욕이 없고 우울하거나 슬플 때가 있다.", "나는 갑자기 얼마동안 울음을 터뜨리거나 울고 싶을 때가 있다." 등의 문항으로, 긍정문항은 "내 머리는 항상 맑다.", "나의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문항으로 질문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 설문지 검사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중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긍정적인 문항은 역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대상의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동일한 도구를 이용한 유혜숙(2006)[1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79로 나타났다.

3.2 분석 결과

3.2.1 기술통계량 및 정규성

이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에서 의한 일반적인 경향과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서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에 따른 기술통계량 및 정규성을 보여주는 왜도와 첨도를 제시하는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정규성

측정변인	M	SD	왜도	첨도
비겁	5.3263	2.0531	-.288	-.861
식상	6.0392	3.0682	-.238	-.768
재성	7.1749	3.1728	-.270	-.858
관성	6.8644	3.1637	-.154	-.981
인성	6.0774	2.9446	-.476	-.784
자기효능감	3.1040	.9662	-.312	-.828
우울	3.1912	.9901	-.361	-.745

<표 2>에 의하면, 이 연구를 위해 사용된 각 변수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성격유형에서는 재성이 M=7.17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겁이 M=5.3263으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의 평균값은 M=3.1040으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인 우울은 M=3.1912로 나타났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델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추정법으로 최대우도법(ML)이다. 최대우도법은 정규성 이론(normal theory)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변량 정규성을 이루는 모든 속성을 평가하

기란 쉬지 않아 단변량 분포를 확인해서 변인들의 정규성을 파악하였다. 단변량 정규성을 확인을 위해 비정규성을 나타나는 두 가지 요인으로 왜도(skew)와 첨도(kurtosis)분석을 하였다. 왜도지표의 나타내는 절대값이 3.0 이상이면 분포는 '매우 큰' 편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하며, 첨도지표에 대하여서는 대체로 절대값이 8.0에서 20.0 이면 첨도가 '매우 큰'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시된 <표 2>의 측정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측정변인의 왜도 및 첨도 각각 절대값 3.0 및 8.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정규성을 확보한 것을 판단하였다.

3.2.2 다중공선성 진단

이 연구의 모든 잠재변수들은 형성적 지표들에 따라서 구성되는데, 형성적 지표의 검증은 보편적인 반영으로 지표 검증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주된 이유는 두 지표간의 성격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형성적 지표는 측정지표가 잠재변수의 형성요인은 측정지표의 변화가 잠재변수의 변화에서 가져온다. 따라서 형성적 지표에서는 반영적 관계로 행해지는 측정지표는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및, 수렴 타당도(convergent validity), 또는 판별 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 검증보다는 다중공선성 검증, 측정지표의 경로계수 방향, 즉 정(+)적의 또는 부(-)적으로 어떠한 관계인지와 지표들 간의 경로계수 비교에 의한 지표의 적절성(indicator relevance)과 그리고 통계적 유의도가 중요하다.

다중공선성 검증이 필요한 이유로는 측정지표와 잠재변수의 관계가 서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결정되어지므로 독립변수인 측정지표들 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때는 정보의 중복뿐만 아니라 R^2 값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형성적 지표에서는 측정지표들이 제안된 방향으로 나타났는지, 또한 어떤 지표가 잠재변수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데 측정지표들 간의 적절성을 나타내며, 이러한 지표의 적절성은 나타난 통계가 유의할 때만 의미를 가지게 된다.

<표 3>은 이 연구의 형성적 측정지표를 나타내는 다중공선성의 검사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VIF 값이 10.0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연구의 모든 측정지표들 중 VIF 값이 가장 높은 것이 2.791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다중공선성 검사 결과

측정지표		Tolerance	VIF
성격유형	비겁	.922	1.087
	식상	.918	1.109
	재성	.368	2.791
	관성	.786	1.321
	인성	.424	2.420
자기효능감		.376	2.739
우울		.641	1.608

3.2.3 신뢰도 검증 및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도구의 신뢰도란 측정 문항 중에 내적 일관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측정변수의 진정한 값이 측정하는 정도이며 측정오차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즉 신뢰성이란 동일한 개념에 대해 반복하여 측정했을 때 나온 측정값의 분산을 의미한다. 신뢰도간 측정에는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이다.

다문항 측정도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항이 의도한 변수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꼭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함께 신뢰성을 분석하게 된다. 통계적으로 신뢰성은 측정에 의한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대부분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활용하여 검증을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크론바하 알파 값이 0.7 이상이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문항 측정도구를 이용한 자기효능감과 우울 요인의 신뢰도 측정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변수	문항수	Cronbach′s Alpha 값
자기효능감	5	.776
우울	20	.904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자기효능감의 Cronbach′s Alpha 값은 0.776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 요인의 Cronbach′s Alpha 값은 0.904의 내적 신뢰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 설문문항의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타당성이란 연구의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정확히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을 말한다. 개발된 측정도구가 해당 속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였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타당성은 정확성에 관한 것이며,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보통 많이 사용되는 내용타당도, 기준타당도, 구성타당도 등이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측정도구가 연구하려 하는 개념, 즉 구성을 제대로 측정했는지 검증하는 방법인 구성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 중 측정모형에 대한 AMOS를 활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측정하여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가 타당하게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론적인 배경에서 변수들 서로간의 기존관계를 설정하고 요인분석을 이용해 그 관계의 성립 여부를 파악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기존 이론 및 경험적인 연구 결과로부터 분석대상이 되는 변수사이에 의한 사전지식이나 이론적인 결과를 가지고 그 내용을 가설의 형식으로 모형화한다. 즉,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미 탐색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여진 이론적인 논의에 의해 측정구조가 강하게 가설화하여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의 방법을 의미한다.

측정변수에 대한 차원성 재검증과 항목구성의 최적상태를 검증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명리변수, 자기효능감, 우울의 측정모델을 위한 적합도 지수는 χ^2=222.629(p<.001), χ^2/df=3.227, GFI=0.917, AGFI=0.879, TLI=0.901, CFI=0.913, RMSEA=0.074, Standardized RMR =0.053으로 권고기준치에 전반적으로 부합하였으며 각 요인에 대한 측정항목의 구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각 변수의 하위요인별로 높은 적재치를 보였으며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3.2.4 상관관계분석

이 연구의 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표 5>에서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우울을 중심으로 식상, 인성은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비겁, 재성, 관성, 자기효능감은 부(-)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과 성격유형의 관계에서는 비겁, 재성, 관성이 명리변수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식상, 인성이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와 함께, 명리변수에서도 각기 상이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비겁, 재성, 관성 간에는 정(+)의 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이들 변수는 식상, 인성과는 부(-)의 관계를 보였고, 식상과 인성 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경력단절 상황에 있는 중년여성들의 명리변수에서 비겁, 재성, 관성의 특성은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우울을 낮추지만, 식상, 인성의 특성은 반대로 자기효능감을 낮추고 우울을 높이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 개인이 지닌 명리변수의 복합적 경향성에 의한 효과가 어떠한 방향을 갖는지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체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의 의심이 되여지는 상관계수가 .80 이상의 관계를 나타나는 측정변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그러므로 이 연구의 측정변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변수 간의 상관관계 (p<.001)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자기효능	우울
비겁	1						
식상	-.661	1					
재성	.670	-.523	1				
관성	.639	-.436	.675	1			
인성	-.586	.402	-.617	-.614	1		
자기효능	.599	-.414	.628	.628	-.438	1	
우울	-.617	.467	-.603	-.732	.551	-.717	1

3.2.5 모형구축 및 적합도

이 연구모형에 포함된 각 측정변수들에 관한 타당성과 신뢰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명리변수와 자기효능감, 그리고 명리변수와 우울, 자기효능감과 우울 경로를 살피는 최종 분석모형은 도출되었다. 이 최종 분석모형을 기초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제시한 연구모형을 검정하기 위한 잠재변수들 간의 구성된 구조모형 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런데 연구모형 분석에 앞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이 그러하듯 회귀계수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분석의 모형의 적합도 수준이 수용가능한 수준인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 모형

에 나타난 적합도 지수를 확인해 보면 아래 <표 6>에 제시된 것은 다음과 같다.

〈표 6〉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χ^2 검증				RMSEA	CFI	TLI (NNFI)
Default Model	χ^2	df	χ^2/df	p	.054	.948	.932
	656.927	247	2.660	.000			

RMSEA LO: .048, HI: .067

이 연구모형에서 적합도 수준을 평가하면 χ^2 검증은 p값이 0.05보다 작아 연구모형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χ^2 검증은 본질적으로 기각되기 쉽우며, 동일한 상태의 모형도 표본의 크기에 따라 기각 또은 채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이 연구모형은 χ^2 검증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χ^2 값을 자유도(df)로 나눈 값이 3 미만이어야 한다는 기준에는 부합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종합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우선 TLI(NNFI)와 CFI 값이 0.9 상회로 나타나 모형 적합도는 만족 수준을 보여 적합하다. 또한 RMSEA의 경우에서도 0.054로 나왔으며 0.05 이하라는 매우 적합도 수준에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채택할 수 있는 적합도 수준 0.08 이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90% 신뢰구간의 최소값은 0.048, 최대값으로 0.067을 나타냈으며, 신뢰구간의 간격이 좁을수록 좋다, 그리하여 적합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모형을 최종 분석모형으로 확정하여 연구모형 검정을 진행하였다.

3.2.6 최종모형 및 변수 간 검증

모형 검증결과에서 매개변수에 의한 간접영향력 검토에 앞서 잠재변수 간 직접영향력에 의한 연구문제를 검정하였다. 먼저 연구모형에 관한 분석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연구모형 분석 결과

분석모형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t
비겁→우울	-.239	.062	-4.413***
식상→우울	.340	.068	5.675***
재성→우울	-.232	.059	-3.997***
관성→우울	-.229	.061	-3.775***
인성→우울	.110	.064	1.807
비겁→자기효능감	.274	.058	5.532***
식상→자기효능감	-.159	.065	-2.683**
재성→자기효능감	.326	.060	6.308***
관성→자기효능감	.374	.062	7.022***
인성→자기효능감	-.094	.071	-1.323
자기효능감→우울	-.127	.069	-2.184*

*p<.05, **p<.01, ***p<.001

첫 번째로 명리변수의 5가지 변수인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특성이 우울에 대해 갖는 직접영향력은 '인성→우울'을 제외하고, p<.001 수준에서 다른 가설은 유의하였다. 먼저 경력단절 중년여성의 비겁 특성은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로 채택되었다(β=-.239). 식상 특성은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은 채택되었다(β=.340). 재성 특성은 우울에 부정적인 직접 영향력(β=-.232)을 보여 해당 연구가설도 채택되었다. 그리고 관성 특성 역시 우울이 부정적인 직접 영향력(β=-.229)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다만, 경력단절 중년여성의 인성 특성은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기각되었다(β=.110, p>.05).

두 번째로 명리변수의 5가지 변수인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특성이 자기효능감에 대해 갖는 직접영향력을 살펴보면, '인성→자기효능감'의 경로를 제외하고, 각기 p<.001, p<.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먼저 '비겁→자기효능감'은 경로에 대해서는 p<.001 수준에서 긍정적인 직접영향력(β=.274)을 나타내 연구가설로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식상→자기효능감'의 경로에 대해서는 p<.01 수준에서 부정적인 직접영향력(β=-.159)을 보여 연구가설은 채택되었으며, '재성→자기효능감' 또한 경로에 대해서는 p<.001 수준으로 긍정적인 직접영향력(β=.326)을 나타내 연구가설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관성→

자기효능감' 또한 경로에 대해서는 p<.001 수준에서 긍정적인 직접영향력(β=.374)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관한 연구가설도 채택되었다. 다만, 경력단절 중년여성의 인성 특성은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기각되었다(β=-.094, p>.05).

세 번째로 매개변수인 경력단절 중년여성의 자기효능감이 종속변수인 우울에 미치는 직접영향력은 부(-)적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β=-.127, p<.05) 이에 따라 연구가설로 채택되었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서 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비율이 어느 정도로 설명하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치인 R^2 값에 기준하는 것은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확인한다. 이를 활용한 연구모형에 나타난 내생 잠재변수들이 연구모형에 포함한 다른 잠재변수들을 잘 설명되고 있는지를 제시하면 <표 8>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우울은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자기효능감이 약 63%를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의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은 외생 잠재변수인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에 대해서만 설명되고 있으며, 그 비율로는 약 52%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면, 경력단절 중년여성의 성격유형이 자기효능감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해석하려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효능감과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 연구에서 고려한 연구변수 외에도 이 연구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나머지 비율에 해당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표 8〉 각 잠재변수의 SMC 값

설명되는 내생 잠재변수	설명하는 외생 잠재변수	R^2
우울감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자기효능감	.634
자기효능감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517

이 연구는 자기효능감 요인을 매개변수를 설정하여 먼저 검정한 잠재변수 간 직접적인 영향력과 함께 매개변수를 통해 종속변수인 우울에 대해 간접적인 영향력이 어떠한지도 검정하였다. 직접효과(direct effect)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로의 증감으로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간접효과(indirect effect)는 독립변수의 한 개 이상의 중간변수를 통하여 매개되어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나타낸다. 이럴때, 간접효과의 크기는 해당 경로계수들의 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먼저 각 직접영향력에 의한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어 간접효과의 크기는 각 회귀계수를 이용한 산술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대우도법(ML)을 통하여 확인한 직접효과 즉, 회귀계수와 상이하여 간접효과는 분포의 정규성을 가정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AMOS 프로그램에서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에 대해 검정해 볼 필요가 있다. 95% 신뢰구간에서 연구가설인 성격유형의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특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에 따른 매개효과에 의한 유의성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한 영가설은 각각 경로계수의 곱이 0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간접효과가 통계적의 유의미하려면 영가설이 기각되어야 분석결과 도출한 유의도는 신뢰구간 외부에 존재해야 한다.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의 우울에 의한 각각의 간접효과는 이런 기준을 충족하여 95% 신뢰수준으로 간접효과는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관성 특성의 우울에 대한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의 하한 값이 산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한 값(0.024)이 유의도 값(0.033)보다 작기 때문에 간접효과의 유의미한지를 판단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표 9〉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정

분석모형 경로	p	95% 신뢰구간
비겁→우울	.020	.584 ~ 1.413
식상→우울	.037	.495 ~ 1.127
재성→우울	.016	.631 ~ 1.655
관성→우울	.033	.0 ~ .024
인성→우울	.040	.767 ~ 2.039

이처럼 직접효과(추정치)와 간접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연구가설과 관련해서 <표 10>과 같이 각 경로별 간접효과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다.

〈표 10〉 각 경로별 간접효과의 크기

매개변수를 통한 경로	간접효과	p
비겁→자기효능감→우울	.192	.020
식상→자기효능감→우울	-.145	.037
재성→자기효능감→우울	.228	.016
관성→자기효능감→우울	.152	.033
인성→자기효능감→우울	-.134	.040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로, 비겁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우울에 .192의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식상과 우울 간에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검증 결과에서는 -.145의 간접효과를 보였으며, 재성과 우울 간에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228의 간접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관성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우울에 .152의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성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우울에 -.134의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간접효과에 의한 가설은 세부적으로 모두 채택되었다. 그리고 각 간접효과의 절대적 크기로 직접효과와 비교해 볼 때 유의한 직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유형인 인성과 우울 간의 경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낮은 것으로 검증되어 직접효과가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성에 대하여는 간접효과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 검증결과 및 결론

4.1 검증결과

연구 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수들(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자기효능감, 우울) 간 모든 경로를 포괄하여 위에서 논의한 검증결과를 정리하고, 그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첫째, 경력단절 중년여성의 명리변수의 경향적 특성 중, 비겁, 재성, 관성은 자기효능감에 대해 긍정적인 직접영향을 주며, 우울에는 부정적인 직접영향을 주어, 결국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우울은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 중에서 자기효능감에 대해 절대적인 크기가 가장 큰 것은 관성 > 재성 > 비겁 순이고, 우울에 대해서는 유사한 효과 크기가 나타났다. 또한 식상은 우울에는 정(+)적 관계를, 자기효능감에는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일간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에 내재된 성격유형 중에서 식상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경력단절과 중년기의 상황을 겪고 있는 여성에게 있어서 자기효능감을 갖기 어려운 작용을 하게 되며, 그에 따라 우울감을 가질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식상의 특성이 창조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장점을 가졌으나, 부정적 혹은 열악한 조건 하에서는 자기이해와 탄력성이 떨어져 스스로 파괴적인 심리적 대처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우울은 낮추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관성의 예를 살펴보면, 특유의 인내심, 절제력, 의지력, 책임감, 원칙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합리적인 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해온 자기효능감과 우울의 관계와 동일한 결과로서 대체로 경력단절중년여성 개인의 수행 기준과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클 때 우울이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높은 수행 기준을 가지고 있거나, 일반적인 수행 기준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사람은 높은 우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자기효능감은 부정적인 사건과 심리적인 건강 간의 관계를 중재하며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자기효능감을 높게 의식하는 사람들은 강한 집중력을 가짐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지만 자기효능감을 낮게 지각하는 사람은 환경적 어려움을 실제 이상으로 두려워하여 스트레스의 강도가 높아지고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키며 심리적인 건강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자기 능력에 대한 신념의 뒷받침은 우울이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심리적인 자원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력단절 중년여성의 명리상담이나 심리치료 및 재취업 서비스 장면에서 내담자의 개인적인 환경을 이해하고 경력단절로 인한 심리적 위축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각각이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을 통해 우울에 대해 갖는 간접효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각자의 성격유형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우울에 대해 중재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매개적 경로에 있어서 비겁, 식상, 재성, 관성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성격유형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인성은 자기효능감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우울에 대한 간접효과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완전매개효과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였으므로 인성과 우울 간에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격유형의 인성 특성은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기효능감을 낮추고 우울은 증가시키는 방향성을 보였는데, 인성의 경우 수용성과 이해력이 뛰어나지만, 특유의 염세적이고 모호한 태도로 인해 뚜렷한 효과가 드러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모형과 가설들을 검증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검증결과의 정리

경로	결과	방향
성격유형→우울	부분채택	-
비겁→우울	채택	부(-)
식상→우울	채택	정(+)
재성→우울	채택	부(-)
관성→우울	채택	부(-)
인성→우울	기각	-
성격유형→자기효능감	부분채택	-
비겁→자기효능감	채택	정(+)
식상→자기효능감	채택	부(-)
재성→자기효능감	채택	정(+)
관성→자기효능감	채택	정(+)
인성→자기효능감	기각	-
자기효능감→우울	채택	부(-)
성격유형→자기효능감→우울	부분채택	-
비겁→자기효능감→우울	부분매개	정(+)
식상→자기효능감→우울	부분매개	부(-)
재성→자기효능감→우울	부분매개	정(+)
관성→자기효능감→우울	부분매개	정(+)
인성→자기효능감→우울	매개효과 없음	-

4.2 결론

이 연구는 40~50대 경력단절 중년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사주요인에 따라 자기효능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 및 변인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복잡다변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사주가 제공하는 기준을 통해 고학력 경력단절 중년여성 자신의 욕구와 능력,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정확한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진로와 직업탐색, 교육과 상담, 정책과 제도 등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안 및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삶의 만족감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주명리학을 적용한 고학력 경력단절 중년여성의 상담은 사주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의 파악에서부터 출발한다. 국내에서 명리변수에 따른 선행연구와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여 명리변수와 경력단절 중년여성을 면담하여 연구대상자들의 경력단절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우울에 대한 면담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상황과 환경 및 생태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성격의 유형에 따른 고학력 경력단절 중년여성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이들이 경력단절 상황에 대해 적극적·긍정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소극적·부정적으로 대처할 것인지로 크게 구분된다. 이는 경력여성 중년여성이 처한 고용환경, 사회전반, 가정 등 사회 환경이 이들의 경력계발에 대해 지지적이지 못하더라도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향후 새로운 사회진출의 기회에서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 고학력 경력단절 중년여성의 재취업과 경력회복 및 적응은 기존의 직장생활에서 축적된 사회적 자본과 경험을 중심으로 고학력 경력단절 중년여성을 둘러싼 많은 제도와 문화, 체제, 주변인들이 함께 경력단절 중년여성들의 경력계발에 대해 지지하고, 우호적일 때, 효과적인 경력 적응을 이루어지고, 이것이 경력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책적으로 향후 여성인적자원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여성의 경력단절 축소와 경력단절여성의 효율적인 활용 및 여성인적자원 양성과정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경력단절여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성차별적 인사의 관행을 제약하고 적극적으로 남녀고용평등을 실천하고,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력단절 중년여성의 성격유형을 활용한 심리지원을 통한 사주특성을 살려 넓은 인재 풀 양성 및 다양성 강화, 여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는 특성화 전략과 양육자 보호 및 보육지원의 다양화, 대폭적인 보육시설개선을 통한 유연하고 다양성 있는 정책을 실시하고, 이를 실천하는 기업에게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경력단절 중년여성들의 심리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고용정책과의 연결망 구축이다. 경력단절 중년여성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이들의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고용지원서비스에 더하여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 자원연계와 자문, 심리 상담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더불어 이들의 문화, 역사와 심리적 현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력단절 중년여성의 문제가 그만큼 복합적이고 다면적이며, 문화, 취업기회, 가족상황 등의 환경과 직업훈련, 경제적 자활서비스, 신체・정신 건강 등의 다른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결과 제시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이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로 제기한 가설 설정, ① 경력단절 중년여성의 성격유형은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② 경력단절 중년여성의 성격유형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③ 경력단절 중년여성의 자기효능감은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④ 자기효능감은 성격유형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는 가설 검증결과가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이 개인의 출생연월일시로 구성되는 사주라는 상담 도구를 활용하여 경력단절로 인한 우울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심리적 위축을 도울 수 있는 명리상담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 사회문제의 일환으로 대두되고 있는 고학력 경력단절 중년여성의 재취업 진입 단계에서 이들의 심리안정을 돕는데 사주요인별 자기효능감과 우울에 따른 심리지원과 상담이 선행되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경력단절 중년여성 자신의 내면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일차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직시하고, 과거 진로선택에서의 환경과 생애주기를 거쳐 중년이 되어 전혀 다른 직업 환경에서의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환경에 사주요인별 직업적, 심리적, 진로탄력성에 관한 사전정보를 제공해주어 자신의 자질과 직업적성에 대한 이해를 제공받고 성공적인 진로행동을 결정하고 진로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References

[1] 김기승(2011),『사주심리치료학(개정증보)』, 서울: 창해.

[2] 김배성(2006),『사주심리와 인간경영』, 서울: 창해.

[3] 김현미(1999),『여성의 일 찾기 세상 바꾸기 : 2000년 한국, 여성은 노동자가 될 수 없는가』, 서울: 또 하나의 문화.

[4] 김기승(2014)「대학생의 명리직업선천성과 진로탄력성, 진로결정수준의 구조적 관계」, 경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 김순안(2012),「갱년기 여성의 발달현상에 대한 태도와 폐경증상이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 32(2).

[6] 김연희(2011),「중년기여성의 자아분화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김인선(2005),「경력단절 여성 경력지원프로그램의 효과연구 - 서울지역 14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경영연구, 1(12).

[8] 박금자, 이경혜(2002),「중년기 여성의 우울 구조모형」, 여성건강간호학회지, 8(1).

[9] 박은영(2004),「여성사회복지사의 직장 가정갈등이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송옥현(1977),「정신과 외래환자의 T he Self- Rating Depression Scale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16(1).

[11] 오복자(1994),「위암환자의 건강증진행위와 삶의 질 예측모형」,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2] 유혜숙(2006),「지역교회 중년여성의 영적안녕과 노화에 대한 태도 및 우울의 관계」, 고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이안나(2014),「노인의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4] 이희정, 김금미(2010),「경력단절여성의 진로장벽지

각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2).
[15] 차영란, 김기범, 전경숙(2007), 「중년여성의 일상생활속의 사회적 역할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12(3).
[16] 최성희(2001), 「기혼여성의 성역할정체감과 우울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7] Betz, N. E., & Hackett, G.(1983). The relationship of mathematics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the selection of science-based college majo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3(3).
[18] Nauta, M. M., Epperson, D. L., & Kahn, J. H.(1998). A multiple group analysis of predictors of high level career aspirations among women in mathematics, science and engineering maj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4).
[19] Matsui, T., Matsui, K., & Ohnishi, R.(1990). Mechanism underlying math self-efficacy learning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7.

신 순 옥(Shin, Sun-Ok)

- 2011년 2월: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 2012년 2월: 서울사이버대 심리학과 (심리상담사)
- 2015년 2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국학과 (국학석사)
- 2018년 8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동양학과 (동양학박사)
- 관심분야: 명리학, 타로, 별자리, 아로마, 관상, 명상, 치유
- E-Mail: leif3713@hanmail.net